



## “學會 位相정립에 힘쓸터”

### 都市計劃분야 전문성 반영...명칭변경

『국토계획학회 30년의 傳統을 계승하고 都市計劃분야의 專門性은 물론 회원구성을 반영한 학회의 전문성 提高 및 位相정립을 위하여 회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로 학회명칭을 변경하는데 산과역을 맡았던 이 학회 金源회장(서울市立大 대학원장)은 지난 7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학문영역의 전문화·세분화추세에 따라 조경분야는 조경학회로, 교통분야는 교통학회로 파생돼 나가고 학회에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들이 주류를 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사실 2년전부터 미국등 선진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진 학자들에 의해 학회명 개칭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 金회장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과도기적 현실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학회발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조사, Survey 등을 거쳐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밝힌다.

『국토·도시계획학회로 바꾼 것은 여러가지 법적·제도적인



金 源 회장

문제에서 야기된 일종의 타협안이었으나 향후 2~30년후에는 도시계획학회로 완전히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金회장은 國土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都市化의 개념과 相通하게 될 것이므로 30년쯤후에는 농촌도 도시화가 되고 도시는 더 큰 도시화 현상을 보이게 되어 전 국가가 하나의 도시국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金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都市化현상은 바람직하게 발전해 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경제·사회구조가 中央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지방시민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 스스로 자구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地自制가 실시되면

中央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金회장은 이렇게 되어야 전국토의 고른 발전으로 國土資源의 效率化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학회명칭변경을 계기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하에 학회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우리 학회가 21세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작정입니다』 金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신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 회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 회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학회는 특히 내년 10월경 미국의 미시건주립대와 CODS(개발문제연구협의체 : Consortium on development studies) 등과 공동으로 북한학자는 물론 동구권 학자등 외국학자 150명을 초청하여 제4회 도시계획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힌다.<仁>